

2) 모로곡(毛老谷)

의병대장(義兵大將) 신돌석(申堧石) 장군이 일본군을 이 계곡으로 유인하여 전멸시켰으므로 일본군이 장군의 묘략(妙略)에 속았다고 하여 모로곡(毛老谷)이라 부른다.

3) 백암산(白巖山)

온정면 온정리와 영양군 수비면과 경계를 이루는 웅장한 신비의 영산(靈山)으로 산봉우리에 흰 바위를 이고 있으며, ‘뱀알’이라는 뜻을 지닌 산이다. 온정면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로 남쪽에는 깎은 듯한 절벽이 있다. 백암온천지구에서 백암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에서 흰 바위 쪽의 북동편 산록에서 와편 다수가 발견되어 백암사지로 추정된다. 백암산성의 유지는 양남아의 성곡마을에서 백암산 정상을 향해 1시간 30분 거리의 중턱에 있다. 울진지역의 고성 중 그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석성지이다.

4) 백암온천(白岩溫泉)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에 있는 온천이다. 고려 명종 때는 목조 욕탕으로, 조선시대 때는 석조 욕탕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13년 일본인이 최초의 현대식 일본 여관인 평해백암온천관(平海白巖溫泉館)을 신축하였다. 백암이란 이때의 일본식 여관의 상호로서 오늘날 백암온천관광특구의 명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암온천은 1979년 12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19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백암온천 지구 내에는 관광호텔 2개소, 일반호텔 2개소, 여관 10개소, 콘도 1개소 그리고 기업·기관의 연수원 3개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방사능·유황 복합 온천으로 심도 77~300m에서 솟는 천연 온천수이다. 평균 온도는 50℃ 정도이다. 인체에 유익한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여 자율신경계통 기능을 강화하고 심장 및 중풍, 피부 질환,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제18절 온정2리(溫井二里)[속명 : 음남아(陰南阿)]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산등(山嶺) 너머에 갑배마을과 접하고, 서쪽은 모릿시골과, 하천(河川)을 경계로 온정1리가 있으며, 남쪽은 조금리와 접하여 있고, 북쪽은 그릿들 소태2리와 인접하고 있다. 마을의 남동쪽에 기린봉을 뒤로 두르고 마을 앞에는 집앞들이 펼쳐있으며 남아실거랑이 흐른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형국

을 공마 또는 반월형으로 여겨 ‘처음에 부자가 되나 이곳에 계속 머물면 차츰 가세가 기울어 지므로 부자가 되었을 때 마을을 떠나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약 300년 전에 안성 이씨(李氏)로 전하며 울산 박씨(蔚山朴氏), 광주 이씨(廣州李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州) 순으로 입향했다고 전한다. 마을을 개척할 당시 백암산(白岩山)을 중심으로 동쪽에 산야(山野)가 아름답고 농토가 비옥하며 마을이 음지(陰地)쪽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음남아(陰南阿)라 하였고, 속칭(俗稱)으로는 음지마을이라고도 한다. 울산 박씨(蔚山朴氏) 음남아 마을 입향조인 박광손이 지은 재실인 남계정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29세대가 거주하며 울산 박씨(蔚山朴氏), 용궁 전씨(龍宮全氏) 등이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마음소(馬飲沼)

이 소(沼)는 말이 물을 마시는 형태라 하여 마음소(馬飲沼)라 부른다.

제19절 외선미1리(外仙味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외선미리의 속명은 선미(仙味)이다. 안마, 내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쪽은 달부내등을 경계로 선구2리 음지마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금장산(金藏山)을 경계로 영양군 본신리와 닿아있다. 남쪽은 호봉골등을 경계로 외선미2리 원마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때기재를 경계로 기성면 이평리와 닿아있다. 외선미1리는 선구2리와 외선미2리 사이에 있는 미륵들의 동북쪽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할배당’인 성황당이 있다. ‘할배당’은 마을의 위쪽인 곤두골에 있다. 외선미1리는 새재마, 중간마, 물감나무마을, 강변마, 양자마, 음지마